

##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상보적 서술 양상에 대한 전체론적 해석

이지환\*

<차 례>

1. 서론
2.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해석들에 대한 검토
3. 향전과 승전의 상보적 관계를 통한 해석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속 「감통(感通)」 편의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 조(條)를 대상 텍스트로 하여, 내부 텍스트들 간의 상보적 관계를 상정하여 해석해보려고 한다. 〈육면비염불서승〉 안에 있는 두 이야기들(향전鄉傳과 승전僧傳)의 관계를 상보적이라고 본다면, ‘육면’의 성불 과정과 수행 결과의 의미는 보다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향전과 승전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들을 메타적으로 검토하고, 상보적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각 해석들의 전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의 성과로서, ‘단일한 물리적 사건’으로 이야기 텍스트를 환원하려는 시도의 암묵적인 전제들이 〈육면비염불서승〉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다. 그리고 상보적 관계를 상정한 뒤 해석하여, 보다 텍스트의 서술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가능한 해석을 보였다. 〈육면비염불서승〉에서 ‘향전’은 ‘지금 여기’에서의 성불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승전’은 전생들과 성불 이후의 결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해석은 각각의 하위 서사가 제공하는 이해를 서로 관련지었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육면’의 성불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세부적인 논쟁적 해석 지점들에 대해서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일관성 있고 유의미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옥면, 전체론, 상보적 관계, 매개 절점, 기호학

## 1. 서론

본고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속 「감통(感通)」 편의 〈옥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 조(條)를 대상 텍스트로 하여, 불교 담론에서 규정하거나 권장하는 해석 행위의 지침 및 습관들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그에 따른 해석에서는, 조 텍스트의 전체 안에 있는 두 하위 서사 텍스트들(향전 鄉傳과 승전僧傳) 및 찬(讚)의 의미 관계가, 상보적인 전체성을 가지도록 구성된다. 그 구성된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은 〈옥면비염불서승〉 텍스트에 대해서 적합성을 갖는 해석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본고는 〈옥면비염불서승〉의 서술자가 바로 그러한 종류의 해석을 수용자에게 유도하려는 서술 의도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옥면비염불서승〉은 성불담과 사찰연기설화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편제, 전반적인 서술 목적, 구체적인 서술 양상이나 서술 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불교 담론과의 관련 속에서 읽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텍스트를 불교 담론과의 관련 속에서 읽는 것은, 불교 담론에서 규정되는 해석 습관을 통하여 불교 서사 텍스트를 읽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오히려 대립되는 경우도 있다. 불교 담론에서 제기되는 표상들을, 선형적이고 환원적인 역사관을 비롯한 일상적인 해석 방식들(그렇기에 은폐되거나 자연화되기 쉬운)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하는 연기론을, 해석 행위를 제어하는 공준으로 삼는다면, 일상적인 대상, 그리고 선형적이거나 환원적인 해석의 대상은, 비선형적이고 비환원적

인 해석을 생산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sup>1)</sup>

이러한 문제제기는 특정한 유형의 기존 해석들에 대해서만 적절하다. 그 해석들은, 미결정된 의미들이나 결정을 거부하는 의미관계들을, 텍스트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결정된 도식에 따라 확정된 실제적 대상으로 놓는다. 그리고 그 실제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중심적인 해석의 암묵적이고 당연한 전제로 삼아 전개된다. 그렇게 하면 불교 담론에서 저항하고자 하는 견해들이 그대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교 담론에 기반하는 의미를 억압하고 배제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서나 다른 담론에 관련한 텍스트들이라면 적절한 해석일 수도 있겠으나, 저술자 및 편집자로서의 승려 일연, 『삼국유사』의 특성과 『감통』 편의 일반적인 양상들,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

- 1) 연기론에 대한 이러한 본고의 입장은, 선형적이고 환원적인 단일 방향 인과율(linear causality)과, 불교 및 일반시스템의 상호인과율(mutual causality)의 차이를 설명하고 강조하는 조애너 메이시(Joanna Macy)의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본고는 이야기 서술 양상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의 정신(인지 시스템)에 대한 관점은 함께하지만, 초기 불교의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논리적 입장을 중시하는 그녀의 관점과는 별개이다.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의 입장이라 할 윤희와 성불의 실제성에 대한 중후기 불교의 종교적인 확신의 관점과도 별개이다. 왜냐하면 윤희와 현신성불이 실제로 어떠한든, <육면비염불서승> 이야기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렇게 서술된 것들이, 이야기 전체 및 그러한 전체로서의 관계를 구성해보려는 해석 속에서, 상호 관계에 의해 특정한 의미를 가짐을 보이려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해석자가 어떤 이야기의 내부 요소들을 상호존재적이고 전체성을 가진 관계로서 시험적으로 구성해볼 때, 그 이야기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의미 구조 및 생성 경로를 간주관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야기 해석자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기재된 문자들의 배열(언어 인지의 환경), 언어 인지를 중심으로 매개되는 인지들(해석의 환경), 인지들에 대한 메타적인 해석 체계들이 함께 이루는, 포괄적 인지 체계의 재구성 과정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메타적인 해석 체계에 의한 선형적 해석 행위와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 행위에 대해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조애너 메이시(Joanna Macy), 이종표 역,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불교시대사, 2004, 5~366쪽.

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적합한 서술이라고 판단된다.

〈육면비염불서승〉에 대해서, 역사학, 여성주의, 신화학, 문체론, 비교설화학, 기호론, 정치철학, 번역학, 문화학, 문헌학, 불교학 등을 비롯한 연구들<sup>2)</sup>이 있어왔지만, 각각의 해석들의 추론 근거를 비롯해 텍스트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메타적인 논의는 여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육면비염불서승〉을 단순히 불교 담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 한다. 각각의 기존 논의에서 추론해볼 수 있는 전제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성을 드러낼 것이다. 특히 2장에서 수행 과정과 성불 결과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해석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간과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작업은 각자의 해석의 자유, 즉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의 인정이나 불인정과는 별개의 것이다. 2장에서의 작업은 단지 각각의 해석들에서 은폐된 전제들이나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의 편집적인 수용 등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다. 은폐된 전제를 명시하고, 정보의 총체적 수용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검토는, 〈육면비염불서승〉의 전반에 대한 유연하고 다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의미들의 복잡한 관계 양상을 비환원적으로 드러낸다.

그러한 작업에 의하여 서술들이 유도할 수 있는 사고 기호들의 상보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관계들이 사고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들은, 텍스트의 전반적인 서술 의도와 의미들에 대한 추론으로 가는 기반이 된다. 본고는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가 수용자의 해석이 향전이나 승전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둘을 종합하여 ‘육면’이라는 기호에, 공지시적인 연결 관계의 충만함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주장한다. 만약 수용자가 ‘육면’과 ‘육면에 대한 이야기’의 일대일 대응

2) 기존 논의의 분야가 다양하며, 다른 논의들에서 충분히 언급하고 있고, 기존 논의들이 〈육면비염불서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여러 기존 논의를 나열하기보다는 2장에서 구체적인 검토에 필요한 논의만 선별적으로 언급한다.

이라는 판단을 제어한다면, ‘육면’과 ‘육면에 대한 이야기’는 일대다, 다대다, 다대일의 대응 관계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일대일 대응만을 추구하는 판단은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협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본다. 그러한 해석들은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서술 양상, 서술 의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한 인물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추구하는 지향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단일한 유기체 및 단일한 물리적 사건’을 추구함에 따라 인도되는 해석들은, 두 서사 간 위계를 구성하려 하거나, 텍스트의 일부를 텍스트의 전체로 놓으려 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텍스트를 전체로서, 그리고 텍스트로서 이해하는 방향을 간과한다.

〈육면비염불서승〉은 성불담과 사찰 연기 설화라는 텍스트 유형에 속한다. 그러한 텍스트 유형들의 의미와 그 의미를 통해 추론될 서술 목적을 간과하면, 서술들의 총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충돌하는 기록(事記), 즉 대립되는 두 이야기의 나열로 환원된다. 그러면 단일한 물리적 시공간, 단일 사건, 개별적 유기체인 사건 주체를 상상 및 확정하려는 세속적이고 근대적인 사고 경향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텍스트가, 그러한 사고 경향을 논리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도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들은 텍스트를 편집하고 왜곡하여 간주관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육면비염불서승〉에 속한 두 이야기의 관계가 해석 과정에 놓이지 못하고, 근대적 사고 경향에 따라 조정된 하나의 이야기의 형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이야기 창작이므로, 제시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아니며, 이야기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부정한다. 이러한 지적은 그 새로운 이야기가 그것대로 가치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술들의 총체를 대립되는 이야기의 나열로 보면서 단일한 사건을 구성하려는 것과, 두 이야기의 관계를 상보적으로 보면서 서술에 기반하는 의미의 총체를 확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에 대한 자유자재한 해석을 위

해서는 우선 암묵적인 전제들을 명시화해서, 통합적인 해석 행위를 위한 계열체들(paradigms)에 속하게 해야 한다. 즉, 세속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느낌은 주지만, 텍스트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지 않은 전제들은, 선택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 전제들에 따른 사고들조차도, 암묵적으로 당연시되는 전제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판단을 통해 그 전제들을 선택하는 사고가 될 수 있다. 3장에서 〈옥면비염불서승〉에 대하여 상보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본고의 작업은, 상기 언급한 목적에 따라, 선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탐구들의 암묵적 전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실제 옥면이라는 인물이 어떤 시공간에서 성불했는지, 실제로 옥면이 전생이 있는지(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손을 바늘로 꿰뚫었는지, 실제로 부처가 된 옥면의 몸은 어떤 몸인지 확정하는 명제는, 〈옥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 해석에 부적절한 전제이다. 또한 적절성과 상관없이, 〈옥면비염불서승〉이라는 텍스트에 근거하거나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전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전제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부터 〈옥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된다. 그러한 전제들은, 옥면에 대한 서사 텍스트이면서도 서로 어긋나는 정보를 담은 향전과 승전 두 텍스트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다른 텍스트나 담론을 끌어와서 한 쪽에 더 높은 위계를 부과하거나 한 쪽을 아예 배제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떤 텍스트의 서술 의도나 총체적인 의미 효과와는 괴리된다. 그러므로 텍스트로서 하나의 조가 전달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한 조 내부의 두 텍스트 사이에서 의심 속에 빠지는 것은 실로 불교 담론 속에서 대체로 거부되는 유형의 질문들과 전제들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옥면비염불서승〉 속에서 서술자의 ‘그러나 양쪽을 두고 의심은 두지 않는다(然兩存之闕疑)’라는, 두 이야기의 관계에 대한 메타적 서술, 그 서술의 입장에서 다

시 출발하려는 것이다.<sup>3)</sup> 3장의 작업은 양쪽을 그대로 두고 의심을 앉혔다는 메타적 서술이 어떠한 서술 의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고의 작업은 ‘육면’, ‘육면의 몸’, ‘염불결사’ 등의 텍스트 속에 제시된 부분적인 기호들에 일대일 대응시킨 ‘실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본고는 『삼국유사』 속 「감통」 편에 속한 〈육면비염불서승〉이라는 텍스트 총체와 그 텍스트 속의 기호들에 대한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sup>4)</sup>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의미에 대한 가설적인 전제들에서 출발하며, 다시 그 전제들에 기반하는 해석들이 텍스트의 기호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얻으면서, 그 기호들에 의미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설은 향전과 승전 텍스트가 단순히 나열 관계를 넘어 서술 의도에 부합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서술 의도 및 두 이야기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가설에서 기반하여 구성된 기호들의 관계들은 보다 세부적인 기호들 각각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적용될 것이다. 그러한 적용들이 서로 어긋남이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면, 텍

---

3) 본고에서 인용되는 『삼국유사』 제 5권, 감통 편, 〈육면비염불서승〉 조를 비롯한 삼국유사의 원문들은 모두 다음에서 가져온 것이다.

일연 지음, 이병도 옮김, 『삼국유사』,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a.co.kr>, 2020.7.22.

4) ‘양존지결의(兩存之闕疑)’는 『삼국유사』 피은 편의 〈신충괘관〉 조에서도 나타나는 데, 한 이야기는 신충信患이 단속사라는 절을 세웠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는 이준李俊이 단속사를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절을 한 명의 인물이라는 일대일 대응을 하면, 두 이야기의 정보가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일대일 대응의 확고한 성취와 별개로, 조의 특성과 찬(讚)을 고려할 때는 두 엇갈리는 정보를 가진 이야기의 배열이, 속세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기보다는 출세간하여 임금의 복을 비는 사람들의 강조라는 점에서, 배증(倍增)의 기능을 갖게 된다. 중창이나 개창의 가능성을 비롯해, 협력이나 승인, 지원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과 별개로, 어떤 한 인물이 단속사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려는 것은, 어떤 사건 혹은 텍스트에서 제공된 일부 대상의 실제에 대한 탐구이다. 그래서 그것은 『삼국유사』 「피은」 편의 〈신충괘관〉 조라는 텍스트의 총체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나, 서술 양상을 비롯한 서술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연구는 전혀 아닌 것이다.

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한 가설이, 텍스트 서술 양상에 적합한 것, 다시 말해 그 가설에 기초한 의미들의 연결망이 전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과정은 기초 혹은 초기 텍스트, 이론 및 가설 텍스트, 해석 텍스트의 환원 불가능한 삼원적인 관계망이 긴밀한 연결성을 확보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기능하는 의미들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재구성 및 확장되는 것이다. 즉 텍스트 생성의 원천을 마주하는 일차적인 수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 텍스트에 대해 가설과 해석에 기반하여 재구성하면서, 그 재구성 과정이 다시 해석이나 가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sup>5)</sup> 이러한 입장에 따라 본고의 서론과 2장에서는, 따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 공간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논의 검토와 일차적인 번역 및 이해와 관련지어 제시한다.

위의 서술들을 다시 정리하면, 본고는, 향전과 승전을 대립된 관계이거나, 관계없는 나열로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행 관계를 넘어설만한 상보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그 가설에 따라 유도 가능한 해석들을

5) 물론 그 삼원적 관계에서 재구성된 해석은 심층의 모순을 드러낼 수도 있고, 표층의 모순을 통합할 수도 있다. 그러한 차이는 텍스트의 성질과 해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 텍스트가 모순을 만들어내며, 이분법적 대립을 만들어내는 담론에 기반하여 제공된 것이라면, 재구성한 해석이 언급하는 모순은 담론과 텍스트의 효과로서의 모순을 밝히려는 것이다. 반대로 대상 텍스트가 모순을 통합하며, 이분법적 대립을 벗어나려는 담론에 기반하여 제공된 것이라면, 재구성한 해석에서 언급하는 통합은 담론과 텍스트의 효과로서의 통합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때 어떤 텍스트 해석의 ‘강건성(robustness)’은, 모순의 유무나 담론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초 텍스트, 담론체계, 해석 행위 각각에 대해서, 그것들의 성질, 그리고 그 성질들의 관계들을 명시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관계를 구성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차이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본고의 서론을 「문헌 육담의 성 경계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어면순」과 「속어면순」을 중심으로」의 서론(242~256쪽)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치환, 「문헌 육담의 성 경계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어면순」과 「속어면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2019, 242~256쪽.

세부적인 기호들에 재적용하여도 문제적이지 않음을 보이려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행이 보다 〈육면비염불서승〉을 전체성을 갖는 텍스트로서 연구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두 텍스트를 대립적 관계로 놓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일방적인 반발이 아니다. 단지 두 텍스트의 대립적 관계를 비롯한 이분법적 관계들을 당연하게 상정하는 해석들에 대해 그것을 명시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보적 관계로 볼 때에, 〈육면비염불서승〉에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전체성(서술자가 이 텍스트로서 수용자에게 유도하려는 의미라고 추정할 자격을 갖춘)을 제공하는 해석이 가능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 2.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해석들에 대한 검토

2장에서는 〈육면비염불서승〉에 대하여, 그 수행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3장에서의 해석을 위한 텍스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검토하고, 세부적인 기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보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텍스트의 기초적인 이해에 관한 기존 논의의 논점들을 보다 명시적이고 메타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전체들의 구체적인 차이와 별개로, 『삼국유사』에 대한 관점 및 해석의 일관성은 본고가 따르는 규정으로서 명시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 서술자와 서술 방식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다면, 『삼국유사』 속에서 비슷한 유형의 성불담들을 읽는 방식과 〈육면비염불서승〉을 읽는 방식이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다면, 우리는 『삼국유사』 속 다른 수행자의 성불을 인정할 때, 육면의 성불도 인정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육면비염불서승〉이 완전히 단독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삼국유사』 속의 다른 텍스트들과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

제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2장의 작업은 육면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종합적인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삼국유사』 속 다른 수행자들의 수행 과정 및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결과는 해석의 근거로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조를 고찰하지 않고 성립된 논의들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야기 텍스트에 대한 탐구의 수행에 있어서, 텍스트의 기호들을 느낌이나 선전에 따라 임의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즉, 제시된 이야기 서술을, 참으로서의 실제 사건에 대한 거짓으로서의 허구적 진술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탐구로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탐구는, 실재를 형이상학적으로 상상하여, 두 차원의 이야기 서술(거짓으로서의 대상 텍스트와 참으로서의 실제 사건)을 만들어 불필요하고 부당한 위계를 부과한다. 이는 탐구자가 스스로의 상상을 참인 합리적인 실제로 만든 뒤, 대상 텍스트를 그 합리적인 상상에 대한 거짓인 허구로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대상 텍스트의 부분을 임의적으로 부정하고 나머지는 긍정하는 자의적 편집과 함께, 임의적으로 부정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긍정된 나머지와 함께 관련지으며 실제 사건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상상한다. 그 상상에 맞춰 부정된 부분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원래 제시된 이야기 서술의 의미에 대한 탐구와 괴리되는, 전도적인 임의적 부정이 일어난다. 그러한 임의적 부정은, 그 이야기가 제시하려는 의미를 일방적으로 간과한다. 이는 이미 하나의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왜곡 혹은 과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 따라 이야기에서 제시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는, 상상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한 탐구들은, 이야기 서술 양상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의미 탐구와

달리, 논지 전개에 있어 비약적이거나 전도적인 단계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리적 시공간에서 성립 가능한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은, 이야기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환원적인 상상’에 따른 이야기 재구성’이다. 다시 말해, 대상 서사와는 다른,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사고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서사의 구축이고, 그에 따라 비세속적이고 비밀상적인 의미에 대한 임의적인 거부, 혹은 부정이다. 추정컨대 이러한 사고는, 실제로 성불(특히 현신성불)이 일어날 수 없다는 선입견에 따라, 한 이야기에서 그 사고에 거슬리는 부분들을 소거하려는 충동으로 인도되어, 그에 따라 이야기에서 성불 자체를 제거하려 하는 것 같다. 그러한 경우라면, 성불담이 성불담이 아니게 되며, 성불담에서 성불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야기에 제시된 기호에 대해 부정하는 모든 종류의 해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유형에 따라 그러한 해석이 권장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sup>6)</sup> 다만 어떤 해석 행위가 자

6) 기본적으로 성불담에서 성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긍정하자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주장이듯이, 어떤 교훈담에서 교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긍정하자는 것도 큰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성불이나 교훈의 의미를 비판할 수 있다. 그 의미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담론을 자연화하려는 신화적인 이야기 텍스트에 대해, 탈신화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한 탈신화화는 그 담론이 ‘실제’라고 규정하는 그것을 ‘실제’가 아니라 ‘허구’라고 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명시화하고, 선택의 영역에 놓으려는 것이다. 그 선택 행위는 상대적인 것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가치에 대한 관점들에 따라 평가된다. 해석을 행위(해석함)로 본다면, 그 행위의 가치는, 그가 따르는 미학, 윤리학, 논리학 등의 구체적인 규범과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낮은 가치를 두는 선택을 직접 하고서, 그 선택에 따른 해석을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는 스스로의 관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사한 것들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에게 확립된 관점은 없는 것이다. 그의 선택은 우연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정당화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모든 해석이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술적인 해석, 논술되는 해석들은 다른 것들 보다 확립되어야 하고, 스스로 모순되어,

승자박을 피하거나, 임의적인 인상에서 벗어나려면, 비슷한 유형의 텍스트들에 대해서 해석 습관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유지하지 않으려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야기에 제시된 기호에 대한 임의적 부정을 거부할 것이며,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텍스트들에 대한 해석 습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원하지 않는 해석을 하거나 그 해석에 따라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반성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만일 논리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우리는 언고자 원하는 놀이를 얻지 못하며, 하기를 원하는 놀이를 하지 못한다.(375쪽)” 본고는, 비트겐슈타인이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에서 말하는 실용주의적인 의미론적 입장에 관하여, 해석의 책임에 대해, 논지의 전반적인 궤를 같이한다. 가령 ‘귀진이 옥면을 미워하다’를 ‘옥면은 처형당했다’로 바꾸는 해석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타인에 대한 감정’을 ‘그 대상인 사람의 자발적 행위를 수동태’로 바꾸는 해석적 조작을 행해야 한다. ‘옥면이 몸을 버리고 성불하다’를 ‘옥면과 서술자는 여자인 몸과 여인의 성불을 싫어 한다’로 바꾸는 사람은, ‘자아 재구성적 행위와 그에 대한 타자의 서술’을 ‘여자의 몸에 대한 혐오 감정과 혐오 담론에 기반한 행위’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 자체의 본질적인 옳고 그름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런 해석 방식을 그 해석자가 정말로 원하고, 비슷한 텍스트들에 대한 보다 일괄적인 규칙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들이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떠한 해석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발적인 연관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논하거나 주장하고 있다면, 그 해석에는 스스로에게로 해석자를 인도하게 한 해석 행위의 습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해석에 영향을 미쳤거나, 혹은 해석이 일어나게 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반으로서 작용한다. 2장과 3장의 관계의 모호함을 지적해주신 심사자께 이 각주를 통해 감사 및 답변을 드린다. 2장 및 그리고 3장에서, 여러 해석 행위 및 그 해석의 효과들, 그리고 그 해석 행위의 다스란 간접적인 해석 습관들을 명시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단순히 기존과 같은 해석 습관에서, 조금 다르거나 우발적인 새로운 해석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2장 및 3장 전반에 걸쳐서 본고의 해석 습관이 기존 해석 습관과 갖는 다층위적인 차이를 명료히 하고, 그 적용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 결과를 검출하고, 그 결과들의 효과로서 재구성되고 의미를 갖는 해석 습관을 얻게 된 것이다. 2장은 그 종합적인 과정에서, 기존 해석 비판 및 새로운 해석 기반에 대한 고찰에 좀 더 비중이 있고, 3장은 2장의 작업에 따른 의미 작용의 모의적 구성 및 해석 습관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성에 보다 비중이 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지음, 박정일 옮김,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 코라 다이아몬드 엮음, 울, 2010, 5~462쪽

먼저 <육면비염불서승> 속의 향전(鄉傳)에 해당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

### 향전(鄉傳)

경덕왕 대 강주(지금의 진주, 강주라고도 한다, 즉 지금의 순안)에 선사 수십 인이 서방을 구하는 것에 뜻을 두어 만(萬)일을 수행하기로 기약하고 주의 경계에 미타사를 세웠다. 이 때에 아간 귀진의 집에 이름이 육면(郁面)인 한 여종이 있었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스님의 염불을 따라했다. 주인은 그 일이 직분에 어긋난다고 미워하여, 매번 곡식 두 석을 주어서 하루 밤 안에 다 쟁게 했다. 여종은 일경에 다 마치고 절에 가서 염불을 했다.(속언인 ‘내 일 바빠 큰집 일을 빨리 한다는 아마도 여기서 비롯된 것 같다.) 어느 저녁에는 조금 지쳐, 마당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양 손바닥을 끈으로 꿰뚫어 이를 말뚝 위에 매어놓고 합장을 하고 좌우로 흔들면서 격하게 힘썼다. 이때 천공에서 육면랑은 당에 들어가 염불하라는 소리가 났다. 절 사람들이 듣고 여종에게 당에 들어가 따라 앞드러서 정진하기를 권했다. 금새 서쪽 하늘에서 음악이 들려오더니 여종이 대들보를 솟구쳐 뚫고 나가 서쪽 교외에 이르렀다. 육신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해 나타났다. 연꽃 대에 앉아 큰 광명을 내뿜었다. 서쪽으로 천천히 날아가고 공중에서는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 당에는 지금도 구멍 뚫린 곳이 있다 한다.(이상 향전)<sup>7)</sup>

육면이 주인의 명에 따라 쟁는 곡식 2석은, 신라 시대에 15말이 1석이었 던 것과 도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대략 300kg 이상일 것이다<sup>8)</sup>. 염불 또

7) 景德王代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則今順安)善士數十人, 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 隨僧念佛, 主憎其不職, 每給穀二碩, 一夕舂之. 婢一更舂畢, 歸寺念佛. (俚言己事之忙, 大家之春促, 盖出乎此.) 日夕微怠, 庭之左右, 豎立長檝, 以繩穿貫兩掌, 繫於檝上合掌, 左右遊之激勵焉. 時有天唱於空郁面娘入堂念佛, 寺衆聞之, 勸婢入堂, 隨倒精進. 未幾, 天樂從西來, 婢湧透屋樑而出, 西行至郊外, 捐骸變現眞身. 坐蓮臺, 放大光明 緩緩而逝, 樂聲不徹空中. 其堂至今有透穴處云. (已上鄉傳.) 『삼국유사』 제 5권, 감통, <육면비염불서승>

8) 연자방아를 사용할 경우 여러 사람과 소가 필요하며, 하루에 두 석 정도를 갈 수

한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면이 지치고 힘든 상태일 것이 상상되며, 그만큼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sup>9)</sup>

다음으로 양 손바닥을 깎는 부분은, 찬에서 다시 주목되었듯이, 향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이야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며, 현대적인 상식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에서 주목하는 논

---

있다고 한다. 즉, 제시된 두 석은 그 양을 통해 엄청난 노동량을 상상시켜, 옥면의 노력을 강조한다.

김재호, 「도정도구의 변천과정과 연자방아의 도정도구사적 의의」, 『민속학연구』 5, 1998, 9쪽.

- 9) ‘日夕微愈’에서 ‘日夕’은 ‘낮과 밤’, 혹은 ‘저녁’이라는 뜻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저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日夕’은 〈옥면비염불서승〉외에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와 〈광덕 엄장(廣德 嚴莊)〉조에서 사용되었다. 〈대산오만진신〉조에서는 “誦隨求羅羅尼, 日夕爲課, 窟神現身白云, 我爲窟神已二千年, 今日始聞隨求真詮”에서 사용되었다. 장천굴의 굴신이 2천년만에 ‘오늘 처음(今日始)’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일석(日夕)’은 ‘낮과 밤’ 혹은 ‘낮밤으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일어난 그 날의 ‘저녁’으로 보아야 한다. 매일 수구다라니를 외었다면, 굴신이 그 행위가 지속되는 각각의 날들에 굴에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야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광덕 엄장〉조에서는 “有沙門名廣德·嚴莊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者, 須告之”에서 사용되었다. 먼저 서방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가자는 ‘약속’을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저녁’에 할 수도 있다. 필자의 주관에서는 굳이 그러한 약속을 매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후자를 고르겠다. 이제 〈옥면비염불서승〉에서는 ‘日夕’이 ‘매일’인지 ‘어느 저녁’인지 판단해보겠다. 모든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갑자기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수련을 1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반대로 손을 꿰뚫는 염불 수행을 여러 회(혹은 매일) 했다고 본다면 먼저 제시된 곡식 2섬을 매일 찢는 노동의 성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저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난점들 없이 수월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어느 저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조에서 사용된 사례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더 적합하다. 이때 ‘미태(微怠)’는 조금 피곤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잠을 쫓고 의지를 다지려하는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매일 태만하지 않게 수행하다가, 극단적으로 수행했다 <-> 어느 지친 날에, 극단적으로 수행했다. 국립국어원 펴냄,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 2020.7.14.

쟁적인 지점이 되어 왔다.

신종원은 이 지점에 대해 백제에서 손바닥을 꾀는 점에서 유사한 형벌이 있었음을 예로 들며, 육면의 능동성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즉 육면이 형벌을 당한 실제 사건이 불교계에서의 윤색을 통해 공덕담이 된 것으로 해석한다.<sup>10)</sup> 이에 대해서는 2장의 초반에서 언급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의 논의는 다음의 합리적인 이유들을 반박하는 입증을 하나라도 해야 한다: 1. 주인의 사유재산인 노비가 하루에 곡식 2석을 다 쪼개놓는 엄청난 노동력을 가졌다면, 대단한 미움이 아닌 이상에야 죽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이다. 2. 노비가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 언짢다고 하여 죽이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약화하여 불교 신자에 대한 폭력으로 보아도, 법흥왕 대 이후의 신라사에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역사적 합리성이다. 3. 신종원이 제시한 백제의 유사 형벌은 반역죄에 대한 것이다. 불국토에서 염불 수행이 갖는 성격에 따라, 노비의 종교적 수행이 범죄도 아닐뿐더러, 반역죄와 동질적인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미 형벌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의 법적 합리성이다. 4. 절의 마당에서 형벌을 부과하여 불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불교 신자들이 불당에서 정진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종교적, 문화적 합리성이다. 5. 신종원이 제시한 예에서는, 모반자에게 손바닥을 꾀뚫어 밧줄로 엮은 뒤에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 목을 벤다. 이는 죽이기 위한 최종 형벌이 아니라 속박하고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자,

10) “첫째, 문제시되는 것은 육면의 고행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精進의 한 형태였을까 하는 점이다. …즉 손바닥을 꾀어 두 손을 모은 것이 설화상으로는 합장이 되었지만 이미 死境에 이른 것으로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절과 불교측의 功德譚이라는 생각이 든다.”(112쪽) “육면이 주인에게 손바닥을 꾀이는 등 모진 형벌을 받고 죽은 사실이 향전과 같은 亡身念佛 형태로 윤색되어 전해졌다고 필자는 본다.”(112쪽)

신종원,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 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한국전통문화연구』 7, 2009, 111~112쪽.

사형 당하기 전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신동원의 주장에 따르면 손바닥을 꿰뚫어 죽게 하는 것이 옥면의 최종 형벌이 되므로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상황적 합리성이다.

물론 모든 현실적인 합리성과 상관없이, 단 한 번의 사례인 그 7세기 중반(663년)의 형벌의 과정의 한 일부가, 8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향전 속 수행 과정의 서술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그 형벌이 수행 과정을 극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 향전의 서술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불가능한 주장이며,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신동원의 주장이 다른 해석자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진경환은 오직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논문을 썼다. 그 논문에서는 신동원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설득력 높은 추론이다. 조동일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 심화했다고 하겠다.”<sup>11)</sup>고 평가하면서, 옥면이 처형되었다는 신동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이는 혼자 손을 꿰뚫고 말뚝 위에 올려 흔드는 염불 수행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능동적 수행 과정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치환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시도는 임의적 부정이다. 만약 혼자서 손을 꿰뚫고 말뚝 위에 올리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증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필히 아간 귀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옥면이 수행하고 있는 절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방면

11) 여기서 진경환이 말한 ‘조동일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옥면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다. 이러한 의심이, 번역을 문제 삼는 관점에서는, 옥면이 논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모든 동사들의 전적인 주어로서 적합한지에 관한 것으로 변환된다.

진경환, 『『삼국유사』 「감통」 “옥면비염불서승” 번역의 문제』, 『한국전통문화연구』 22, 2018, 306쪽.

의 현실적인 합리성의 부족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여야 ‘처형(處刑)’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환원적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비합리적인 논리의 비약이자, 텍스트 유형이나 구체적인 서술 양상들의 관계와 괴리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육면에 대한 수동성을 강조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그 해석 논리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수행자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해볼 수 있다. 육면의 수행은 『삼국유사』의 <진표전간(眞表傳簡)>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바위에 몸을 던져서 몸이 부서졌다가 보살에 의해 다시 회복되는 망신참법(忘身懺法)을 보이는 진표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당연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일관된 해석 논리를 적용할 때, 진표의 망신참은 누군가에 의해 바위에 몸을 던져진 것이거나 실제로는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보살이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어떤 의원이 회복시켰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자기 신체에 높은 가치를 두며, 신체의 고통을 피하려는 일반적인 사람, 즉 자기의 신체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망신(忘身)’들은 불가능해보일 것이다. 이들에게 그러한 ‘망신(忘身)’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망신’이 부정되고, 새로운 요소가 도입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 습관은 어떤 일의 ‘가능성’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들을, 환원적인 도식에 따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적 영험에 대한 서술들에 대하여, 거기에서 제공되지 않은 요소들을, 각종의 이분법적 도식에 삽입하여 그에 따라 해석을 전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객(客)이 실제 있는 주(主)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주(主)가 되도록 이야기를 전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 구성 행위는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일이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수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 일반화되면, 수많은 자아이탈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수준으로 진지한 종교적 수행들에 대해 경시(輕視)하는 습관이 된다. 이는 소신공양, 인신공양을 비롯해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운 수행들을, 바로 그 믿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화형이나 사형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것과 같다. 가령 틱광독(釋廣德, 1897-1963)의 소신공양 같은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서 경험된 것이 아니라 변형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베트남에 수많은 화형이 있었고, 소신공양은 혼자서 했다고 믿겨지기 어려운 일이므로, 그 이야기의 인물이 권력자들에게 형벌을 당한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그러한 설화 해석 논리는 엄밀히 말해서 역사의 추론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리로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야기 텍스트를 다른 결과를 위한 자료로 삼을 때, 여러 해석의 선택지를 갖는다. 실제로 접근하려는 탐구자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여기에서는 손바닥을 꿰뚫는 사건이 실제인지를 먼저 결정하려 한다. 실제라고 놓는다면, 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는지, 수동적으로 당했는지 결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미 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동성을 선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야기에 제시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체로서의 의미 관계를 우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거슬리는 지점들을 선별한 뒤에 그것들을 그의 상식과 주관에 적합한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어떤 합의된 형식에 따라 그자체로 간주관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갖는 근거들의 효력과 생산할 수 있는 해석의 가치에 의하여 해석 공동체에 의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야기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탐구는, 이 부분을 이야기 자체로서 긍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야기로서 어떤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긍정하는 탐구는, 그것을 실제 일어

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단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가 제시하는 의미 세계에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의적인 상상이나 선입견적인 판단에 구속되어, 없는 것을 굳이 더하거나, 있는 것을 굳이 없애지 않으려는 것이다. 즉, 텍스트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그 텍스트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이해와 해석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가령 설화의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 수사학적 이해는, 손을 꺾는 부분을, 찬과의 연계 속에서 긴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사, 혹은 과장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역사와의 관계를 보려한다면, 그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대상 이야기 텍스트와 최소한의 유사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역사라면, 설화적 변용 과정 속에서 ‘뺨 것처럼 보이거나 꺾었다고 들은’ 것이, 이야기 속에서 ‘뺨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낮은 신분을 가진 자의 성불에는 대개 과하거나 잔인한 수준의 자제력, 노력이 요구되거나 부가적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들을 고려할 때, <육면비염불서승>의 향전의 이야기는, 낮은 신분을 가진 이의 성불담의 구조에 적합하게 만드는 조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총체적 사실과의 정합성 속에서 다시 이 세부를 이해하려 하면서, 그 강도를 약화시켜 손을 묶은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텍스트 그대로 강도를 인정하여 손을 꺾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추상화시켜 새로운 상징적인 의미의 연결을 피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 사고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간략하게나마 제시해본 이러한 이야기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유형들은, 해석의 자유이자, 각 해석자의 선택의 영역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육면비염불서승>이라는 ‘이야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로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예 텍스트에 없는 요소를 개입하고, 텍스트에 있는 요소는 제거해버리는, 이야기 해석은 원 텍스트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재구성된 별개의 이야기(현대에 생성된 이본異本)와 그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로서 처리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해, 해석할 자료를 따로 임의적인 조작에 따라 만들어낸 뒤 그 자료를 연구한 것은,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다음의 주된 논의점은 육면이 육신(骸體)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한 신은경은 육면이 ‘여자의 몸을 버리고 남자인 부처의 몸으로 변했다’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신은경은 “향전의 작자가 여성의 종교적 성취에 대해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남성의 서승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 <광덕 엄장>조나 <남백월이성 노혈부득 달달박박(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조와 비교”, 그리고 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의된다. 신은경의 근거는 1. 남성의 몸이 진신으로 변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 2. 기념비적 징표나 후대인의 숭앙 태도가 없다는 것. 3. 찬에서 서승(西昇) 대신에 망형(忘形)이 있다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반박 지점이 있다. 먼저 남성의 몸이 진신으로 변하는 부분이 없다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먼저 <광덕 엄장>에서 신은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인용했다. “그 다음날 엄장이 광덕의 집을 방문해 보니 과연 광덕은 죽어 있었다. …(下略)…”(20쪽) 고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은경이 임의적으로 하락한 다음 구절은 이렇다. “이에 그 (광덕의) 아내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같이 장사를 지냈다”<sup>13)</sup> 간단한 추론으로 우리는 광덕이 유해를 남기고 진신으로 변해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은경의 논리에 대한 반박 사실이다.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반박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삼국유사』 <포천산 5비구 경덕왕대>에도 다음의 구절이 있다. “사승이 나와서 보니, 다섯 비구가 무상(無

12) 신은경, 『『삼국유사』 소개 <육면비염불서승>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여성문학연구』 27, 2012, 18~24쪽.

13) 於是, 乃與其婦收骸, 同營蒿里. 『삼국유사』 제 5권, 감통, <광덕 엄장>.

常)과 고공(苦空)의 이치를 설하고서, 허물을 버리고 유해를 남기고 큰 빛을 발하면서 서쪽을 향해 갔다.”<sup>14)</sup> 이로서 적어도 『삼국유사』에 한해서, 육체를 버리고 진신을 얻은 성불자가 여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해(骸)를 버리고 남자의 몸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애초부터 부처의 진신이 남성의 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불교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도록 성문화된 주장도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 주장에 관한 신은경의 논의에서는 근거들이 임의적으로 선택되거나 반박근거가 부당하게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번 근거는, 『삼국유사』에서 단순히 성불이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으며, 특히 <광덕 엄장>에서도 <육면비염불서승>의 향전과 마찬가지로 징표나 승상이 없다는 점에서 반박된다. 신은경의 근거로 인용된 <광덕 엄장>을 비롯해 비슷한 유형의 텍스트들은, 오히려 신은경의 주장들에 대한 반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육면비염불서승>의 향전과의 심층적인 공통점을 갖는다: 낮은 신분을 가진 존재는 높은 신분을 가진 존재와 비교할 때, 성불함에 있어서,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육체적, 정신적 노력과 의지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념하는 불교적 환경구조물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광덕 엄장>과 <육면비염불서승> 속 향전만을 비교하는 비판적 시선의 방향은, 젠더 차이가 아니라, 계급 차이를 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sup>15)</sup> 다만 <육면비염불서승>에서는, 향전과 달리 승전은 이러한

14) 寺僧出觀, 五比丘爲說無常苦空之理, 蛻棄遺骸, 放大光明, 向西而去. 『삼국유사』 제 5권, 피은, <포천산 5비구 경덕왕대>

15) 이에 대해 박다원은 본고의 다소 비판적인 입장과는 달리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즉, 일연은 『삼국유사』 하층민 구도설화의 구도 양상을 통해 하층민의 구도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삼국유사』 하층민 구도설화는 삶과 맞닿아 있다. 삶의 고통과 욕망 갖가지 상념들을 설화를 통해 들춰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 즉, 고집멸도의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158~159쪽). 물론 이러한 입장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박다원은, 삶의 고통과 욕망이 하층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층민에게 그렇게 강한 의지와 많은 노력이 강조되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공통점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다시 말해, 승전은 향전과 승전 각각에서의 옥면의 성불이라는 서사적 사건에 풍부한 환경구조물을 연결하며, 후대에서의 적극적인 재인과 존송을 시사한다.<sup>16)</sup>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도 전생에는 고귀한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애써 깨달음을 구한다면 옥면과 같이 구도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159쪽)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전생에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증거는 텍스트 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생에 ‘노력(勞力)’에 속하여, 일을 맡아 하는 자였다는 서술은,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하던 자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연속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생에 고귀한 신분이었으니 현생의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도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논리는, 다른 구도 설화와의 관계를 비롯해, 박다윈 자신의 논리적인 맥락에도 어긋난다. 또한 그러한 논리는 옥면이 현생의 힘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 성불한 것의 가치를 격하시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고귀한 신분이 성불하고, 천한 신분은 성불하기 어렵다는 말은 불교 담론을 신분제의 담론이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왜곡된 담론을 그대로 텍스트에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텍스트와 괴리된 해석이 된다. <옥면비염불서승>은 신분과 상관없이 불성이 있다는 여래장(如來藏)적인 사고를 표현하고, 수행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대부분의 논의들에서 인정된다. <옥면비염불서승>에서의 서술 양상은, 그러한 신분제에 기반하여 왜곡된 불교 담론을 무화하거나 역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박다윈, 『『삼국유사』 구도설화에 나타난 하층민의 구도 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21, 2018, 158~159쪽.

- 16) ‘승전’에서 승선 유석이 중창에 참여했으므로 서술이 전달하는 상황과 그 의미를 간단히 추리할 수 있다. 유석이 고려 의종 대에 1146년부터 관직을 얻고, 1151년 5월 28일(음)에 추밀원지주사가 되므로 그 직전에 추밀원 승선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승전’은 각훈의 『해동고승전』(1215年作)이다. 의종 대에 전반적으로 왕에 의한 불사가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국왕의 의사를 대변하는 문고리 권력인 추밀원 승선이 대사 회경과 함께 중창을 직접 맡았다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종이 반문벌세력을 중용했고, 중창한 법왕사가 동남쪽의 유명한 절이 되었다는 ‘승전’의 내용을 고려하면, 여종이되 성불한 옥면에 대한 기념 건축물의 5년에 걸친 구축은 신분제에 관련된 의미들을 갖게 된다. 또한 옥면의 성불의 의미가 폄하되지 않고 널리 인정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의종이 이의민을 총애하였고, 그의 어머니가 옥령사의 여종인 것을 고려하면, 의종이 신분에 대해 갖는 차별의식이 이전 세대보다는 약했다는 것, 그리고 문벌세력의 신분에 따른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소 확실하다(물론 이는 초중기 집권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옥면비염불서승>에 인용된 ‘승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에 기반 한다기보다는, ‘옥면의 성불’에

마지막으로 찬에 나온 망형(忘形)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이 이야기의 절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찬이 꼭 이야기의 절정과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이는 또 다른 밀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효력이 약한 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보자면, 서승(西昇)은 대단원이나 결말에 해당하는 것이고, 게다가 조의 이름으로서 이미 거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신은경의 주장대로 한다면, 찬보다도 더 주요한 제목은 오히려 육면비염불망형, 육면비천장망형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망형은 극도의 찬사이다. 연좌대에 올라 화려하게 빛을 뽐으며 날아가는 ‘서승’과 ‘진신을 얻음’은 망형의 귀결일 뿐이다. 그러면 남자의 몸이 진신이 되거나 서승하면, 그들은 망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진신이 됨은 이미 자신의 몸에 대한 잊음(자기 육신에 대한 집착의 해소), 즉 망형을 함축한다. 따라서 신은경의 주장은 오로지 표현된 형태들의 일시적, 자의적 연결에만 집착하고, 망형의 종교적, 설화적 의미를 고찰하지 않은 귀결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

---

대하여 당대의 인식, 그리고 그 이후의 승려 각훈이 부여하는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무신정권 이후 보다 대중친화적인 행동 및 결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 사상이 확산되고 민중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육면비염불서승> 속 ‘승전’에서의 법왕사 중창 사건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과 의미 해석을 시도하는 것에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친다.

고려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사』, 세가, 권 제17, 의종 5년 [1151],

<http://db.history.go.kr/KOREA>

- 17)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결정된 중성의 이승”과 “결정되지 않은 근성의 성문”을 구별한다(117쪽). 정도에 왕생한다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음”이다(118쪽). 이 구분과 이 표현, 이러한 해석습관(대승의 지혜)을 감안하지 않으면, 연표 자체의 경계에만 모든 의미와 사유를 가둔 채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와 논리(이승의 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육면비염불서승>이 미타, 염불, 왕생을 서술하고 그에 관련되기 때문에, 무량수경에 대한 이해는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효만큼 불교 담론 및 재해석에 통달한 자가 한국의 고급에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고는 그의 견해를 존중하겠다. 원효 지음, 정목 옮김, 『무량수경종요』, 비움과 소통, 2015, 116~119쪽.

은 자기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육체들을 가졌다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불자들에게 망형과 부처의 몸에 대한 오해를 재생산하고, 공고히 한다.

이제 <육면비염불서승>의 승전 부분을 논의하겠다.

#### 승전(僧傳)

승전에 따르면, 큰 재목인 팔진이라는 자는 관음의 현신이다. 일천의 무리를 모아 둘로 나누어 하나는 힘써 돕는 무리(노력勞力), 하나는 잘 수련하는 무리(정수精修)로 두었다. 그 노력들 중에 일을 맡아 하는 자가 계를 지키지 못하여 축생도에 떨어졌고,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불경을 깊어지고 다니는 일을 해서, 불경의 힘經力에 의지해, 아간 귀진 집의 옥면이라는 여종이 되었다. 하가산에 이르고 나서 꿈에서 감응하더니 드디어 도심(道心)을 발하였다. 아간의 집 근처에 혜숙법사가 세운 미타사가 멀지 않았다. 아간은 항상 그 절에 가서 염불을 했다. 여종도 따라와서 마당에서 염불을 했다. 이렇게 구년이 되어, 을미년 정월 21일에 부처에게 절하다 대들보를 들어내고 날아가버렸다. 소백산에 이르러, 신발 한 짝을 떨어트렸다. 이에 그 땅을 보리사로 삼았다. 산 아래에 이르러 그 몸을 내버렸다. 이제 그 땅은 이(二)보리사로 삼았다. 그 전을 옥면등천지전이라 명 붙였다. 용마루에 구멍이 10 허위인데, 비록 비가 세차게 내리고 하늘 가득 눈이 와도 젖지 않았다...<sup>18)</sup>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여종 옥면의 전생들이 ‘남성’이라고 말해왔다. 혹

18) 이 인용의 다음 내용은 바로 위의 각주 16번에서 논하는 내용으로, 이미 밝혔듯이 전제할 필요가 없어 중략하였다. 按僧傳, 棟梁八珍者觀音應現也. 結徒有一千, 分明(朋)爲二, 一勞力, 一精修, 彼勞力中知事者不獲戒, 墮畜生道, 爲浮石寺牛. 嘗馱經而行, 賴經力, 轉爲阿干貴珍家婢, 名郁面. 因事至下柯山, 感夢遂發道心. 阿干家距惠宿法師所創彌陀寺不遠, 阿干每至其寺念佛, 婢隨往, 在庭念佛云云. 如是九年, 歲在乙未正月二十一日, 禮佛撥屋梁而去, 至小伯山, 墮一隻履, 就其地爲菩提寺. 至山下棄其身, 卽其地爲二菩提寺, 榜其殿曰闕面登天之殿. 屋脊穴成十許圍, 雖暴雨密雪不霑濕. 『삼국유사』 제 5권, 감통, <육면비염불서승>

은 ‘남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아예 여성이거나 남성이라고 볼만한 실마리가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에 한해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육면의 전생을 남성이라고 말하는 해석에는 부지불식간에 작용하는 어떤 전제가 은폐되어있는 것이다. 아마도 기존 논의들에서는 노력(勞力)의 무리를 모을 때, 남성으로 모았을 것이라거나, 절에서 일하는 자, 혹은 절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자는 대개 남성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전제들이 무엇이든지간에 근거가 없다면 명확히 반대한다. 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임의적인 전제에 따라 텍스트의 한 인물에 대해 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생의 성을 해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거나, 혹은 텍스트에서 성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추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분명히 과거이든 현재이든, 절에서 여성들이 수많은 노력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속에는 해당 시대에 수많은 귀족과 왕족 여성들이 불사를 하고, 수행의 무리에 참여하고(<진표전간>), 중이 되거나 절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육면에 대한 연구에서 육면의 전생을 ‘남성’으로 본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성들의 불교 공동체 속 노동과 참여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리고 『삼국유사』의 한 조를 읽을 때에, 『삼국유사』의 총체적 의미들과의 관련 속에서 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앞서 본고가 거부하기로 한 종류의 해석 습관, 즉 나타난 것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제 3의 요소의 임의적 도입이라는 해석 습관이다. 정리하자면 <육면비염불서승>의 승전은, 한 인간(이야기 해석자가 성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딱히 성을 확정할 필요성도 없는)<sup>19)</sup>이 계를 어기고, 소가

19) 이러한 지점에서 신은경의 언급을 고찰해보자. “승전의 작자는 육면이라는 여종이 성불하여 서방정도에 간 사건을 두고, 성불한 주체의 전생이 팔진의 지도하에 수행정진하던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여자가 아닌 남자가 서방정도에 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염불서승한 사람, 다시 말해 승전에 기록된 육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임시로 여자몸으로 태어난 부처의 제자인 것이다”(21~22쪽) “육

되어 불연을 얻고, 여자 노비로서 성불하는 서사이다. 즉, ‘어떤 일정한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한 개별적 자아들의 연속체(윤회하는 자아)’를 상정하여, 그 윤회하는 자아의 불법 수행 과정과 궁극적 성취(윤회의 중단)를 제시하는 서사이다.

이상으로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마쳤다. 그 비판적 검토는,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임의적으로 부정하거나, 그에 더해 텍스트에 없는 요소와 도식과 지향점을, 텍스트에 대한 해석 과정에 임의적으로 도입하는, 환원적인 서사의 재구축 작업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방법의 설명이나 정당화 또한 그러한 작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긴밀한 관련 속에서 제시되었다.

### 3. 향전과 승전의 상보적 관계를 통한 해석

3장에서는 <육면비염불서승> 속에서 승전과 향전의 상보적 관계를 가정

---

면의 서승 뒤에 그 異蹟이 일어난 곳과 관련하여 제1, 제2 보리사와 법왕사 등 세 개의 사찰이 지어지고 금탑이 세워졌으며 이 성스러운 사건을 기리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도, 승전 작자가 서승한 존재를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 임시적으로 여자몸을 취한 ‘남자’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 즉, 후대인이 숭앙하는 것은 육면이라는 여자종이 아니라, 금생에 임시적으로 여자의 몸을 하고 있는 ‘남자 수행자’인 것이다.”(22쪽) 신은경은 있지도 않은 남성이라는 의미를 부가한 뒤, 오히려 육면의 성불의 의미를 감축시키고, 이 이야기들의 전달 목적과 의미 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다. 수행정진은 남자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육면비염불서승>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이 이야기에서 여자 몸은 임시이고, 남자 몸이 진짜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 여종 육면에서는 형을 잊어 성불한 것이다. 불교에 정진하는 불국도의 사람들은, 여자 몸으로 나타나는 보살을 무시하거나, 성불하는 여성 수행자를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다. <육면비염불서승>은 노력정진으로 성불한 여성 노비 육면을 기리려는 성불담이자, 육면을 기리려는 후대의 모습을 큰 부분으로 포함한다.

신은경, 앞의 글, 21~22쪽.

하고, 그에 따라 구성 가능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 이는 전적으로 독창적인 해석 방식이나 해석 결과를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간과되거나 숨겨진 해석의 방식이나 해석 간의 가교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의미들의 상호 관계들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 해석을 제시해보려는 것이다.

<육면비염불서승> 조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향전, 승전, 논평, 찬으로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논평과 찬 또한 전체 텍스트와의 관련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육면비염불서승>은 향전과 승전이 함께 함에 따라 상호관계 속에서 각각의 의미를 넘어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얻으며, 그렇기 때문에 논평에서 부분적인 하위 서사 한 쪽을 더 높은 사실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즉 <육면비염불서승>은 두 서사를 대립시키거나 두 서사의 위계를 두려는 서술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서술양상을 보이는 서술자의 의도까지도 텍스트에 제시된 것들을 통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비유하자면 두 마리의 말(향전과 승전)이 하나의 마차(텍스트의 총체적인 의미)를 이끄는 양존(兩存)의 서술 양상이다.<sup>20)</sup> 그 두 이야기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두 이야기가 그

20) 물론 세밀하게 보자면 팔진의 본전(발징 본전)도 논평에서 언급되어 육면의 일이 원화 3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보광은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에서 승전과 팔진 본전을 둘로 구분하고, 향전까지 하여 총 3개의 자료로 정리하고 있다. 논리상의 빈틈들은 있되, 발징 본전이 서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6쪽). 우리가 <육면비염불서승>조목만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추론가능하다. 우선 팔진의 본전에서 육면이 '성불한' 일이 원화 3년(808년)이라고 했다면, 승전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경우에, 승전의 두 정보(9년의 수행과 을미년 정월)는 어긋나게 된다. 즉, 9년 수행이 맞다면, 육면이 수행을 시작한 것이 800년이어야 하고, 그전에 육면이 태어나 하가산에서 감응해야하고, 그 전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감안해야하므로, 최소한 790년쯤이나 그 전에 만일염불이 끝났어야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육면은 과도한 노동과 힘든 수행을 같이 하기에 그리 적절한 나이였다고 볼 수 없다. 만일萬日은 27.4년이므로, 팔진의 무리가 758년에 수행을 시작했을 경우 정보들이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면 승전에서 제시된 을미년은 가능한 것이 815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보들의 연쇄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만약 모든 정보가 서로

차이에 의거해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한 쪽을 배제하기 위해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이야기는 그 차이 덕분에, 상보적인 관계를 통하여 ‘노동하는 여종 옥면의 수행을 통한 현신성불’이라는 공통점의 의미를 확충한다. 향전은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수행을 이야기하고, 승전은 옥면의 두 전생 및 현생과 더불어, 후대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3장은 승전에 대해 먼저 해석하고서, 다시 향전과 찬으로 돌아간

맞으려면, 옥면이 수행을 시작한 일이 원화 3년이고, 불법 수행을 9년이 아니라 8년을 했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옥면은 아이일 때가 아니라 청년일 때 수행을 시작하고 815년에 성불한 것이 된다. 그러면 향전에서의 엄청난 노동량도 아이일 때 보다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향전에서는 경덕왕 대이니 옥면이 팔진보다 먼저이고, 승전에서는 팔진 다음이 옥면이니 서로 다르다고 말한 것이다. 향전과 승전이 모두 옳다면 아간 귀진과 옥면이라는 두 행위자의 쌍이 들인 것이다. 승전만이 옳다고 한다면, 향전의 서술은 전체가 틀렸거나, 時有(그 때)라는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경남 진주 혹은 경북 영주(향전이 하나라면 두 서술이 하나 안에 있고, 참고한 향전이 둘 이상이다)에서 경덕왕 대에 선사들 수십인이 만일 수행을 다짐한 일은, 그 때라는 연결이 빠짐으로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일, 즉 분리된 일이 된다. 이제 우리가 향전만이 옳다고 한다면, 승전은 전체가 틀렸거나, 팔진의 무리와 옥면의 일이 초월적이지만 역시 선행적이기도 한 시공간에서 선후로 연결된 것이 틀린 것이 된다. 그렇게 보면, 팔진 사건과 옥면 사건은 분리되고, 그렇게 분리된 승전에서의 옥면 사건은 경북 영주에서의 옥면 사건, 혹은 선사들의 사건과 분리된 옥면 사건과 겹침이 가능하다. 승전의 분리된 옥면 사건이 향전에서의 경북 영주의 옥면 사건과 들어맞는 정보들이 많기에, 그것을 옳다고 하면, 이제 을미 정월 21일은 755년이 되고, 팔진 본전은 틀린 것이 된다. 그것만이 옳다고 한다면, 아간 귀진이 미워하여 방해한 것은 어긋나게 되는데, 이때 그것을 없애거나 극적 긴장을 위한 묘사로서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향전이 맞다면, 경덕왕 대에 선사들이 미타사를 세운 것이고, 승전이 맞다면, 100년 이상 차이나는 진평왕 대의 혜숙이 미타사를 세운 것이다. 둘 다 맞다면 선사들은 중창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써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골라야 하며,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살리기 위해 선사들을 고를 수 있다. 그러면 각 이야기의 필자들을 존중하는 선택들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살린 채 두 이야기의 교점을 얻자면, 742년에서 747년(옥면 수행 시작년도)에 미타사가 세워진 것이고, 옥면은 755년에 성불한 것이며, 귀진은 옥면을 기렸고, 후대의 1150년대에 다시금 크게 사회적 재인을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팔진 본전은 틀린 것이 된다.

한보광,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 『불교학보』 33, 1996, 73~95쪽.

다. 이렇게 전개하는 이유는 승전이 향전에 제공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다시 향전이 승전에 대해, 그리고 <육면비염불서승> 전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승전은 향전에서의 정렬적인 수행 과정의 의미를 심화하기 위한 전생과 현생의 구체적인 정보들, 그리고 수행 결과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들과, 후세에 일어난 일들의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향전은 승전에서 추상적으로 투명해지거나 제거된 수행과정에 대한 의미들을 통해, 승전의 두 전생 및 현생에서의 통시적인 윤회 서사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하고, 후대의 서사들을 수행 과정과 결과의 의미에 기여하도록 기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육면비염불서승>의 전체적인 의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찬(讚)에 대해서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손바닥을 뚫어 줄로 꿰는 것’의 승화된 의미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한 텍스트적, 해석적 기반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승전에서 육면의 전생의 지사자(知事者)에 대한 서술인 ‘계를 얻지 못함(不獲戒)’은 단순히 일을 태만히 했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깨우침이 부족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했다면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일이다.<sup>21)</sup> 불교의 계는 계속해서 그 의미를 충실히 알면서 염두에 두고 지키

21) 지장보살본원경을 참고하면, 육면이 축생과 종이 되는 것을 볼 때, 불경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고, 자만하는 죄에 대한 과보를 받았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若遇汚梵誣僧者 說永在畜生報”, “若遇我慢貢高者 說卑使下賤報”(『地藏菩薩本願經』 第 4, 閻浮衆生業感品), <육면비염불서승>조의 찬과 서술 등을 살펴보면, 육면의 수행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정토삼부경, 지장삼부경 등에서 특히 몸과 노력에 대한 담론들을 강조하는 것들과 궤를 같이 한다. 대표적으로는, 염불을 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음,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 용맹하게 정진함, 피곤을 사양하지 않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와 더불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불법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승전>에서 정월 21일의 성불의 제시는, 지장경에서의 ‘삼칠일’동안 ‘만 번’ 염하는 수행법에 관련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견문이익품에서의 청자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과, <육면비염불서승> 조의 ‘승전’에서 동랑 팔진이 관음보살의 현신이라고 서술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

되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미를 모르면, 계는 피상적인 행동의 형식 이자 억압적인 질서일 뿐이다.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어기게 된다. 집착한다면, 그것은 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의 탐구 자체가 정지한 것이다. 그것은 언어에 의한 지속적이고 기계적인 공명일 뿐이다. 그렇기에 계를 얻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기보다, 계에 대한 태도가 부적절한 것이다. 이를테면 계를 삶에 녹여 내지 못했거나, 혹은 더 심하게는 집착하거나 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현생의 직전인 전생에서서는 축생도에 태어나 경전을 읊기는 일을 하였다. 경전의 힘에 의지하여 다시금 여종으로서 수행해볼 기회를 얻었다. 이는 타력에 의한 것으로 서술된 것이다. 그러나 타력이라고 하더라도 연기 체계에서 타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력적인 거부의 부재 혹은 자력적인 의지와와의 상호의존 속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전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육면’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재해

---

(『地藏菩薩本願經』第 12, 見聞利益品) 만약, 〈육면비염불서승〉과 지장보살본원경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면, 그 경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폄하(즉, 어떤 몸에 대한 고정된 가치의 위계에 따르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육면비염불서승〉에서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경 전반에서는 여성의 몸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의 목적(원하는 몸을 얻음)을 염불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는 어떤 성의 몸이, 그 몸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어떤 자아의 선택의 영역에 놓는 것이다. 즉, 어떤 성의 몸과, 그것에 대한 어떤 성의 인간의 사고를 단일체로 놓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한 조목이나 서술, 한 승려나 책의 내용과, 몇몇 경전 등을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대응시키려는 주장들은, 특정한 서술 의도가 명시되지 않는 한, 확증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해야한다. 수많은 경전의 수많은 내용층에서의 한 구절을, 마찬가지로 많은 경전에 관련 있는 한 내용에 환원적이고 선형적으로 대응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불교 경전들이 연관된 담론 체계의 속성이나 서술자, 담화 방식, 텍스트의 유형, 서술 대상 등 여러 지점을 고려했을 때, 부분들의 일대일 대응은 경전과 텍스트 각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경전과 텍스트가 가질 수도 있는 상호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적절한 논리가 형성되기 어렵다. 대정신수대장경, 『지장보살본원경』, T13, No. 412.

석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향전만 단독적으로 보면, 거기에서의 ‘육면’은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한 여종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한 이름은 물론 하나의 이야기에서 주요한 해석 요소일 수 있지만, 별다른 정보가 없다면 그 이름을 해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인 결정이 된다. 그러나 ‘육면’은 서로 다른 향전과 승전의 의미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두 이야기의 교차점이 될 수 있다. 즉, 각 이야기의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절점(connector)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 절점에 의하여 관계의 생성이 충분히 이루어져 〈육면비염불서승〉의 총체적인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향전과 승전의 상보적 관계 가설에 기반한 해석에서의 ‘육면’은, 향전과 승전의 의미가 집약되고, 향전과 승전에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기호(주인공)<sup>22)</sup>이다. 그럴 때의

22) 이러한 지점에서 폴 리코르의 “인물의 이야기적 동일성이 자체성과 자기성의 두 극점 사이에서 실행하는 이 매개적 기능은 이야기가 이 동일성을 예측시키는 상상적인 변이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증명된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야기는 이 변이들을 용인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낳으며 추구한다”(201쪽)는 언급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의 전제는 인물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인물에 대한 어떤 기호’가 ‘서로 다른 관점 및 서술의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에서 제시되는 ‘성불’은 그가 말하는 자체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 내적 부정이자 담론적인 부정으로서 기능한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관념에 기반하거나, 혹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실존하고 있는 (하나의 신이 만든) 하나의 세계를 믿을 때,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납득가능해보이는 리코르의 주장은, 이런 불교적 관점에서는 통용될 수 없거나 오히려 부정되는 종류의 것이다. 리코르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음은 그의 해석학적 사상에서 신학과 정신현상학 등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상식만으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음 언급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문학적 픽션들은 하나의 불변 요소를 중심으로, 즉 자기와 세계 사이의 실존적 매개로 체험된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상상적 변이들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공상과학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극과 소설의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다.”(203쪽) 그러나 ‘해탈’과 ‘성불’과 ‘망신’은 어떤 인물이 이 한 세상의 한 인간, 즉 세속적인 인간으로서의 우리들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리코르의 입장에서는 한 세상의 한 인간은 두 종류의 동일성과 그 동일성들 간의 변증법에 따라 판단되는 한 인물일 것이다. 그러한 자체, 자기, 그리고 자체와 자기의 변증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불교 담론이고, 그와 연관된 방편들이, 불교 이야기들인 것이다. 이때 본고는 방편을 단순한 도구라는 뜻이 아니라, 세속제(世俗諦)로서 승의제

‘육면’은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 연결망에서의 주요한 절점(hub)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육면(郁面)은 단순히 자의적으로 한 인간에게 연결된 고유명사가 아니며, 이름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것은 자의성에서 벗어나 나름의 체계에 기반한 이유를 얻게 된다. 해석하고자 하는 기호로서의 육면(郁面)은 해석 과정에서 개별 인물을 가리키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의미할 대상을 얻게 된다. 육면이라는 고유명사는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이름, 즉 설화 속에서의 일들과 관련하여 의미를 풍부히 획득한 이름이 된다.<sup>23)</sup> 육면은, 직역하자면, 향기로운 얼굴, 혹은 무성한 얼굴이다. 현재만

---

(勝義諦)와 유사점을 나누는 어떤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더 나아가 불교의 각종 ‘관법’은 다른 세계 내 존재가 됨으로써, 이야기적 동일성에 대한 집착을 깨는 효과를 수행자에게 가져 온다. 한 세계 속 자체성과 자기성 사이에서의 변증법적 작용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일성과 변증법 안으로의 구속의 폐해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육면비염불서승〉에서 ‘육면’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변증법적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면’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 안으로 구속되지 않고 두 이야기 사이를 연결하는 이야기 사이의, 이야기 시스템 자체의 제어 변수로서 기능한다. 즉, 기호로서 ‘육면’이란 한 세계 내의 한 존재가 아니라, 세계들에 걸친 존재, 세계들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최소한 〈육면비염불서승〉에 한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환원하는 해석을 피하고, 환원불가능한 두 이야기의 전반적인 상호관계를 구성하고 해석해보려는 것이다. 이강엽의 신화학적, 상징 원형 중심적 해석도 본고와 구체적인 논리의 맥락은 다르지만, 유사점이 없지는 않다. “한쪽 신발은 이쪽 세계에 한쪽 신발은 저쪽 세계에 뒹으로써 그 주인이 양쪽에 걸쳐진 존재를 표상하게 됨을 알았다. 특히 우리 불교설화에서는 ‘관음’이라는 상징을 통해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부처의 깨침을 추구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드러날 때 신발 한 짝이나 버선 한 짝 같은 식의 상징물이 사용되는데, 이런 양상은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도 그대로 드러난다.”(124쪽)

폴 리콕르(Paul Ricœur), 김용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201~203쪽. 이강엽, 『성(聖)과 속(俗)의 경계(境界)』,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신발 한 짝’, 『고전문학연구』 43, 2013, 124쪽.

- 23) 신화에서 이름과 이야기는 보다 심층적인 관련성을 맺고 작용한다. 물론 이때의 신화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로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유명사의 보편적 의미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하면, 그것은 신화로 수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신화적 관념에 특징적인 말과 지시 대상 간의 동일시가 발생

서술되는 현신성불담인 향전만 놓고 보면 전자인 향기로운 얼굴이 어울린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다양하게 연관된 이전의 생이 제시되는 윤회 서사인 승전에서는 후자인 무성한 얼굴이 더 어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렇게 보면 이때의 얼굴은 단순히 이목구비나, 표면적 모습이 아니라, 심층적인 형상이나 총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다원적인 모습을 가진 시공간을 초월하는 탐구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sup>24)</sup>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고유명사의 영역에서다... 이름과 대상간의 이와 같은 동일시는 고유명사의 비관례적인 성격, 즉 그것의 존재론적 본질을 결정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화적 의식은 세미오시스의 보다 발달된 관점에서 볼 때 탈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름과 신화는 본질적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일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상호규정적이며 서로에게 수렴된다.” 유리 로트만(Yuri M. Lotman) 지음, 김수환 옮김, 『기호계-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8, 151~152쪽.

24) 이러한 서술은 두 서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육면이, 관념 상에서는 하나의 육면, 즉 성불한 하나의 자아로서 두 서사의 의미를 모두 다 가지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각각의 서사에 대한 유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육면-자아가 위치한 두 성스러운 생활세계에 대한 관념은, ‘육면’을 하나의 자아로 본다면 겹쳐진다. 그러나 우리가 두 세계를 구별하고, 육면을 두 자아로 본다면, 포괄적이고 승화된 의미에서의 수행자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노비로서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한 이를 ‘육면’이라고 상징적인 서술 용어를 사용해 부를 수 있고, 혹은 초시공간적 탐구자들의 연결체로서의 육면의 ‘일부로서의 육면’라고 그 대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전자는 천한 세속적 신분을 가졌던 수행자가 높은 수행자로서의 종교적 지위를 얻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호칭이다. 후자는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비롯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세계에서 다양한 서사의 인물이 되는 신성한 존재의 한 서사적 대행체와 서사적 대행자, 즉 보신 및 화신이다. 각각의 해석은 불교 담론에서 공존하고 연관될 수 있는 해석들의 선택 및 관계 영역에 속한다. 해석들은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인지체계 안에서도 서로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육면비염불서승>은 하나의 신체에게 하나의 생활세계(특히 하나의 일상적 생활세계)라는 관념에서 비롯하는 아포리아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 공하는 서사이다. 즉 우리는 다양한 서사 속에 걸쳐있는 존재, 다양한 생활세계의 연결 및 탄력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일상 자체가 하나가 아닌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신체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고, 타자 및 사물들과 연동된 복합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체의 위치와 우리의 정신이 단 하나의 역사적 환경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관념적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아포리아는 없다. 어떤 관점 자체가 서사 속에서 기능함으로써, 우리가 서사들

그러한 육면이 하가산이라는 불연(佛緣)의 응집 지점, 혹은 약속 지점에 도달했으니, 꿈이라는 초월적 시공간<sup>25)</sup>에서 감응이 일어난다. 이는 이미 잠재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던 불법 탐구에서의 삶의 방향성이 현재에서 상호존적으로 발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노력(勞力)을 맡은 지사자일 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불자로서의 아쉬움, 축생으로 일해서 타력으로 불연을 얻어야 했던 아쉬움, 그러면서 겪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된다. 생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응축된 귀의(歸依)의 의지가 상호작용하여, 육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세에서 기회가 닿자마자 실현된 감응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업보와 인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가산에서 꿈

---

의 관계 속에서 사유한다면, 관점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관찰 가능해진다. 생활세계의 이해에 ‘서사, 특히 겹쳐진 서사가 들어간다면, 신체가 여럿이고, 사물, 활동, 매체가 다중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관점의 상대화는 당연한 것이다. 상대주의적 사고의 독단성(관점의 절대화를 피하는 자기 모순을 일으킨다.) 이 문제라면, 얼마나 문제적인지, 해결은 없는지 고민해야한다. 그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위치한 일상과 실천의 단독성을 깨고 연결체로 만들어주는, 비평에 대한 비평, 관점을 적용하여 사고하고 평가하는 습관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 과정에서 문제성이 다소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상대화는, 각자의 관점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 자체를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점의 행위자와는 대화할 수 없고, 따라서 관점들이 상호작용하여 경험을 산출하는 장에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관점이 제공하는 해석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닛타 요시히로(新田義弘), 박인성 역, 『현상학과 해석학』, 도서출판 b, 2018, 206~216쪽.

- 25) 이러한 표현은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 속의 꿈의 의미에 대한 다음의 서술에서 빌려왔다. “꿈과 세계가 조신의 정신의 매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교류하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꿈이란 복합적인 우주를 생성하는 ‘부분으로서 소우주’이다. 그 소우주는 실제보다 가치없는 환상이 아니라, 더 진실되고, 신성한 영원에 가까운 풍경이자 원리의 체현이다. 이것은 곧 현실 세계나, 그 세계에 알려져 있는 진실보다도 더욱 과잉-진실화된, 과잉-현실화된 세계인 것이다.”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12쪽.

을 통해 불법 탐구 과정을 육면에서 강력히 활성화하는 감응을 일으킨다.<sup>26)</sup> 그래서 육면은 그 불법 탐구의 길을 의심없이 신뢰하여 실천하게 된다. 즉, 도심(道心)을 발하게 된다.

이처럼 승전이라는 윤회 서사에서 인식되는 자아들은 개별 유기체를 벗어난 통시적인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그 자아가 상호작용하고 해석하는 모든 의미들은, 그 자아들을 다시 재구성한다. 그러한 지점에서 성불하는 시점의 자아는 전체와 그 과정들에서 매우 일부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수행 과정의 주 행위자로서 작용한다. 승전에서 볼 수 있듯이, 육면은 거시적인 통시적 관계가 다원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탈한 그 때의 육면’이 성불하여 서승한 것이지, 다른 자아의 의지(일을 맡아 하는 자, 부석사의 소)에 선형적이고 숙명론적으로 의존하여 성불한 것이 아니다. 이전 생의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현생의 수행 결과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인 영향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윤회의 서사에서 각각의 자아들은 보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작용하지만, 결국 윤회의 서사의 중단으로서 성불은 ‘그 때의 그 자아(육면)의 팔정도(특히 행위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다분히 명확하다. 윤회의 중단이 나타나는 모든 서사는, 앞의 생에서는 해탈에 실패했고, 뒤의 생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26) 김병권은 이 부분을 “여기서 꿈에 감응했다는 말은 佛經의 힘을 입었다는 말이며, ‘드디어’라는 표현은 지사자일 때에 계를 지키지 못해서 만들었던 죄업을 佛經의 힘으로 참회하고 끊었음을 강조한다.”(164쪽)라고 이해한다. 본고는 김병권이 이처럼 불경의 힘에 의한 수행, 즉 타력(他力)과 수기(受記)를 강조하는 것과 다르다. 향전을 경유하는 상보적 해석에서는 자력과 타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윤회 서사인 승전에서 제시되는 수행자의 경험의 총체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불경은 단지 보시의 공덕에 따라 수행할 기회를 다시 얻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권의 말대로 하면, 지사자로서의 전생이 배제되는 결과가 유도된다. 그리고 불경이 감응을 시키고, 수행을 하게 한다고 보면, 지나친 경전의 신성성을 전제해야한다.

김병권,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의 불교문화적 담론 연구』, 『퇴계학논집』 34, 2019, 164쪽.

그렇다면 이제, 향전의 의미는 위와 같은 승전에 대한 이해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승전에 대하여 향전은, 윤회하는 자가 ‘지금 여기에서’ 해탈을 위해 실현하는 적극적인 수행 의지의 강도를 보여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향전과 승전은 그 선조적 시간 순서에 의해서 반대되는 것으로만 두고 끝날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시간 순서와, 이야기의 나열 순서들은, <육면비염불서승>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육면비염불서승>의 부분들은 상호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구성하도록 짜여 있다. 그렇게 상충하여 해석하면, 각 설화에서 부족한 것들이 ‘여중 육면’이라는 절함점을 통해 보충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향전에서 보여준 철저한 의지는 승전에서 그 심원한 종교적 이유들이 더 보강되며, 승전에서 부족한 ‘지금 여기’의 의지의 강도와 구체적인 정보들은 향전에서 보충된다. 그리하여 이 두 서사 텍스트는 다시 ‘육면’의 의미를 상호증폭적으로 강화한다.

그래서 육면은 향전과 승전의 시간 순서의 충돌에 의하여 모순적인 존재이거나, 부재하거나, 허구적인 인물이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육면비염불서승>의 육면은, 향전의 육면이면서, 승전의 육면이고, 둘 다의 종합으로서의 육면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은, 승전을 읽을 때 향전의 육면에 대한 느낌과 의미를 곧바로 가져오며, 찬을 읽거나 다시 향전을 읽을 때, 승전의 그것을 향전의 육면에 가져오게 된다. 향전을 통하여, 육면의 현재의 노력과 의지가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그것들은 너무도 생생하고 강렬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귀결로서 육면의 성불은, 보다 감명과 해방감을 준다. 그 정도에 따라 승전을 읽는 외중에, 향전에서의 노력이 기억에 남아 겹쳐져 인식된다. 그러면서 승전을 통하여, 육면은 이전의 사연들과 이후의 사연들이 있는 더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수행자가 된다. 그것은 육면의 성불을 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보게 한다. 그리고 승전에서는, 성불의 실현과 실현에 따른 구체적인 귀결들이, 향전에

서 생략된 육면의 성불 과정과 성불 이후를 보충한다. 향전 속 수행의 고통과 의지의 강도가, 승전 속 수행의 기간에 곱해진다. 그래서 승전에서 육면은 초월적 시공간 범위를 배경설정으로 갖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자, 오랜 뒤에도 기념될만한 존재로서 무리 없이 서술된다. 그리고 적절한 기억과 존경을 더욱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불국토 환경구조물이 충분히 제공될만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러한 제공이 승전의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즉 육면은 두 이야기에 공존하고, 우리가 두 이야기의 육면을 동일한 존재로서 통합적으로 인식할 때, 두 이야기는 무리 없이 연결된다. 우리는 미시적 시공간의 이야기 속 수행과정의 육면에서 구체적인 강렬함과 개인적 만족감을 얻으며, 거시적이고 초월적인 시공간의 이야기 속에서 포괄적인 거시구조의 정합성과 사회적 만족감을 얻는다. 이 정합성은 힘들게 일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에 승리하고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sup>27)</sup> 그래서 그 두 이야기의 상

27) 이에 대해서 이도흠은 아간 귀진을 인간의 질서에서의 주체(행위소 모형의), 육면을 신의 질서에서의 주체(마찬가지로 행위소 모형의)로 놓고, 육면이 성불하는 경덕왕 대에서는 두 질서가 대립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해석 체계에서는, 육면이 신의 질서의 주체가 된다면, ‘벌거벗은 생명’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도흠이 사용한 그레마스의 기호학에서의 행위소 모형은, 이항대립의 가정에 기반해 적절하고 유용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육면비염불서승〉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이항대립적일 뿐이라면, 육면의 성불의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에, 행위소 분석이 상당히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삼국유사』에 한해서는 경덕왕 대야말로 다른 왕대에 비해 압도적인 양으로 초월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가 그리는 경덕왕 대의 사회는 두 질서가 불가분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삼국유사』 안에서는 아간 귀진이든, 육면이든 인간 주체이면서, 신적 주체가 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사회도 응신, 화신, 성불 등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두 세계가 겹대하고 있는 불국토 사회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육면은 승전에서 그 불국토 사회 속에서의 인정을 얻는 것이고, 귀진 또한 사회적 기념물을 육면을 기리려고 구축하는 것이다. 〈육면비염불서승〉 속의 다른 부분들과의 총체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육면과 귀진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의 이항대립들은, 오히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도흠, 『한국 문학에서 호모 사케르와 주권 권력의 역학관계와 재현 양상』, 『한국언

보적 관계를 위한 배치는, 정념과 논리, 긴장과 만족, 현재와 과거-미래 등을 정교하게 배합하려는 서술 양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의 주요한 세부 내용들은 다시 읽기를 요구하는 지연성 높은 의미들로 정교하게 배치되어, 이러한 종합적 해석 경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시 본고는 손을 꿰뚫는 것의 의미 해석으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찬은 향전에 있는 손바닥을 뚫어 끈으로 꿰 뒤 망신염불하는 수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승전에서는 힘써 일했던 전생들을 보여준다. 다시 향전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힘써 일하는 현생의 옥면이 있다. 하루에 쌀 두 섬을 찢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옥면은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대체로 한 섬은 성인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양이므로, 두 섬은 대략 하루에 700명이 먹을 양이다. 전후맥락상 그 쌀은 전부 혹은 일정 수준 절에 공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28)</sup> 그래서 본고는

『어문화』 61, 2016, 13~15쪽.

- 28) 그렇게 본다면 유전문流轉門(세속의 노동)과 환멸문還滅門(종교적 수행)의 노력은, 그 사물의 흐름(옥면의 노동의 결과물이 다른 수행자에게 공양되는 흐름)이든, 옥면 스스로의 노력(스스로에게 있어 이타적인 보시의 목적을 갖고, 불법 탐구의 일부인 수행인 노동 행위)에서든,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로써 〈옥면비염불서승〉의 조목에 대한 전체론적 해석은 다양한 시공간에서 노동하고, 세속에서 타인에 의해 강제 되는 노동들에 굴하지 않고서, 높은 수준의 강도로 자발적인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행위자를 구성해낼 수 있다. 박경준은 유전문의 “무명과 욕망(탐욕)에 바탕을 둔”, “고통을 재생산하는 성질의 노동”과, 환멸문의 “팔정도에 바탕한”, “모든 괴로움이 없는 열반을 지향하는 성질의 노동”을 구분한다(239쪽). 모두가 농사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대승불교 교단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행자와 노동자, 수행과 노동의 구분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수행 자체로서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248~249쪽). 이때의 노동이자 수행은 자기 본위적인 탐욕이 아니라, 보시적(이타행), 즉 타자를 향하여 행하는 “욕망의 질적 전환”(p.249)에 바탕한 종교적인 움직임(수행으로서의 노력)이자 노동이다.(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238~250쪽.) 필자가 볼 때, 그러한 노동은, 자본으로 교환되는 사람의 시간(사회적, 경제적 의미에서 좋은 나쁜)이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을 감해주려는 목적과 효과를 가진 자비 행위(즉 일상적 시공간에 따른 의미나, 자기 증식에 대한 집착에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옥면은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염불 수행을 열심히

육면의 뚫린 손을, 단순한 손으로 보기보다는, ‘노동하는 자의 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향전에서 손들이 끈으로 꿰어져 ‘유遊’하고 있는 형상은, 노동하는 몸과 그것을 대표하는 손들의 물질적, 국지적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결, 즉 그들의 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놀고 즐기고 돌아다닌다는 뜻의 ‘유(遊)’는 이런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지므로, 단순히 비상식적이라 하여, 오기된 것이라고 해석될 필요가 없다. 본고에서는 오히려 ‘손을 꿰 노끈’과 ‘놀 유’라는 기호들이 상징적인 의미들로 인도해 주기 위한 서술들로서 의미를 갖는다. 불교 담론에서 노끈은 여러 의미를 담은 기호로서 사용되며, 실제 삶에서 활용되는 생활도구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들은 각 담론들에 따라 서로 연관되고 겹쳐져 사용된다. 왜냐하면 대상 및 정신에 대한 이해가 종교적이고 수행적인 문제들과 종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대상과 정신에 대한 반성적 학문의 문제로서, (가)노끈은 유식론 등에서의 대상의 인식 문제(뱀과 노끈)를 나타내거나, 보다 일반적인 논의들에서 (나)인식의 속성이나 상태 등(서로 얽혀 매이는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그리고 보다 종교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에서, (다)노끈은 중생을 얽매는 초월적인 업이나 집을 상징하거

---

한 것을 넘어선다. 야간 귀진의 미움과 그에 따른 수행 방해 행위조차도, 육면에게는 자기 성불을 위한 염불을 넘어서는, 이타적 행위 과정, 즉 불법에 따른 유의미한 수행 행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향전에서의 수행과정은, 이분법적 대립하는 두 행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불법을 탐구하는 수행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키는 자의 관점에서 전유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하는 자가 불법 탐구를 통해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관념을 재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시키는 자의 객관적인 행위, 불교 담론을 통해 해석할 때, 명백히 차별과 박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혹은 전체의 대승불교 교단이, 그러한 노동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것을 강제하고 정당화한다면, 그 교단은 불교 담론과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가 아닌 신자들을 종교 담론을 통해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권력에 순종적인 노동자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박경준, 앞의 책, 4~408쪽.

나, (태)수행적이고 불법탐구적인 차원에서 의지를 통해 감관, 인식, 사유 등을 제어하는 것, 혹은 (태)그러한 의지를 방해하는 정신적인 구속 등을 뜻한다. (태)의 노끈은, 『정법념처경』에 쓰였듯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69쪽)”, “생각의 노끈으로 마음을 묶어 흔들리지 않게 하되 사나운 말을 다루는(1210쪽)”, “만족하게 하는(1045쪽)” 종류의 노끈들에 속하는 것이다.<sup>29)</sup> 그러므로 <육면비염불서승>에서 손을 켜는 끈과 성불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의미는 (태)와 (태) 등으로 보인다. 즉 이 조목 속의 노끈은,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한 의지로서의 노끈이며, 그러한 방식과 목적을 위해 노끈을 사용하고 있음은 이야기 상에서 분명하다. 그리고 향전에서 이 의지의 노끈의 사용과 거기에서 엮매이지 않고 노니는 경지에 올라섬을 통해, 육면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중생을 엮어매는 업의 노끈을 마침내 벗어나고 있다. ‘승전’은 그 업의 노끈을 보여주며, ‘향전’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사용되는 노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승전과 향전의 상보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에서 인도된 것이다. 노동자의 손에는 노동자의 모든 피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승전을 경유하여 향전을 읽는다면, 그러한 지사자, 소, 여종의 손들이 향전에서의 지금 여기에서 끈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육면은 사회적 위계에 대한 집착의 구속<sup>30)</sup>과 개

29) 원위(元魏) 바라문 구담(瞿曇) 반아류지(般若流支) 옮김(한역), 김월운 옮김(국역), 『정법념처경』,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K0801, <https://abc.dongguk.edu/ehti>, 1~1802쪽.

30) 김병권이 “그러나 신분에 따른 差別意識은 불교의 본래 가르침과 매우 거리가 멀다”(171쪽)고 지적하듯이, 향전에서의 아간 귀진의 행위는 불교 담론에서는 큰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郁面은 전생에 지사자로서 계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업을 지어서 청정한 마음의 眞如本性이 三毒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171쪽)고 말한다. 차별하는 죄업을 지으면 후대에 차별받을 것이라는 경전의 전 건긍정적인 말은, 그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감안하여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당하는 사람이 선대에 죄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역행적인 사고(후건긍정의 오류)이며 오히려 불교 담론이 거부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별적 유기체의 존속에 대한 집착의 구속을 벗어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육면비염불서승>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수행한 사람의 성불이 아니라,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수행한 육면의 성불을 서술한다. 그리고 육면의 수행과 성불은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얻는다. 본고는 서술자가 양쪽 이야기를 두고 서로 어긋나는 정보가 있어도 의심을 두지 않겠다고 서술한 이유를, 위와 같은 해석들을 통해 제시했다. <육면비염불서승>은 두 이야기를 대립시키고, 부적합한 정보는 제거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이야기를 조화시켜, 육면의 성불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서술의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2장과 각주 20번에서, 자연화된 대전제들에 따른 제거(임의적 소거를 통한 협소한 정합적 이야기를 구성 및 성취하는 과정) 및 변형 및 재질합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 이유는, 그러한 과정이 본 논문이 지양하는 방식들을 잘 드러내어주기 때문이다. 두 이야기를 최대한 하나로 맞추려 노력

---

효과를 가진다. 전자는 현재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후자는 현재의 차별을 없애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차별을 당하면, 전생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은 ‘차별을 하는 죄를 지으면, 후생에 같은 차별을 당할 것이다’와 같은 말이 아니다. 현대에 차별을 한 사람은 후대에 차별받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실천적인 말이다. 그러나 현대에 차별받는 사람이 전대에 차별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현재의 정당화로서 악효과를 가져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전의 육면이 귀진에게 차별당하는 것이, 승전의 육면이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오히려 불교문화에서 부적절하다.

김병권, 위의 글, 171쪽.

하면, 그 과정에서의 각각의 선택들이 한 조목을 분할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분할해서 어떤 것을 틀린 것으로, 어떤 것을 맞는 것으로 계속해서 단절하는 추론 과정을 유도한다. 그러면서 서로 안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거나 별 의미 없는 표현들로 보게 된다.<sup>31)</sup> 역으로 우리가 두 이야기를 최대한 덜 의심하여 그대로 두고 조목 전체의 확장된 의미를 추구한다면, 옥면은 일종의 응신하는 보살에 가까운 존재로서 여러 모순되는 지점<sup>32)</sup>들을

- 31) 각 이야기의 필자들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옥면이나 귀진은, 없었는데 만들어진 것이 된다. 혹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있긴 있었는데, 실체가 아닌 종교적인 망상이나, 미신적인 서술이 덧붙여진 것이 된다. 그러면 선사들의 미타사도 없고, 혜숙의 미타사도 없다. 을미년의 성불도, 경덕왕 대의 성불도 없다. 이처럼 모순되어 선택의 영역에 놓인 것들을 모두 지워버리면 사유가 편해진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대상을 연구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선택과 그 이유에 대한 책임들이 사라지고, 더 연관 짓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노력의 필요나 부담이 사라진다. 근대적 사고나 주관적 느낌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향이나 추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텍스트의 부분들을 제거하고, 텍스트 밖의 것들을 추가한다. 서술자들을 전적으로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정보에 관련되지 못한 텍스트 속 정보들은 변형, 왜곡, 무시된다. 부당하게 제거된 텍스트 밖의 어떤 외적 관념(혹은 이야기)을 확정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정당하고 일관될 수 있어도, 그 결과가 협소한 이야기의 생산이 되는, 어떤 논리적 절차들에 따르자면, 여러 모순적인 정보들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옥면과 성불이 모두 없다고 하면 가장 편하다. <옥면비염불서승>의 대부분이 거짓이고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편하다.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 분명히 옳은 해석이지만, 별 의미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쓰여 있되 사실상 어떤 정신에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소실된다. 틀림과 결함과 모순에 대한 공포, 그에 따른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의심에 대한 집착이, 허무주의적인 논리와 실증에 대한 추구로 변질되면 다음을 주장하게 된다. 조목 내 내용들의 양존성을 최대한 버리고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여 모두 지우자. 향전이나 승전은 되는대로 이야기를 전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하자.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도 이후에 서술된 것이어서 보증될 수 없거나, 대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편한 사유의 처리들을 거슬리게 만들 것들이 새로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혹은 제안들이 만족스러운가?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읽거나 연구해야 하는 이유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조목의 서술자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정말 만족했다면 이 조목을 쓸 필요가 없다.
- 32) 이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기호들의 충돌, 한 고유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라는 단일성의 붕괴, 아간 귀진의 옥면 수행 방해와 열렬한 기념 행위의 간극, 옥면의 나이와 과중한 노동량 및 수행 노력의 부적절성,

통합하거나 지나치게 된다. 다시 말해, 어긋나는 지점들을 통합하거나 은폐하는 초월적인 관념은 이야기의 의미를 확장한다. 그것은 신화적인 해석, 종교적인 해석, 초월적인 기호들을 만들어내는 오래된 해석 습관들에 따르는 것이고, 신화적인 기호작용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대의 세속적 사고 패턴에서 거부되며, 본고는 그러한 거부 자체는 정당하고 건전한 사유의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금 현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고, <육면비염불서승> 조목은 오래된 사유를 부정하는 현대의 사유보다는 바로 그 오래된 사유에 의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 및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연구는 육면의 그러한 신화적 의미가 진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 연구는 그러한 신화적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재서술과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 신화적 의미의 모의적 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론에서 구성해보겠다고 한 <육면비염불서승> 텍스트의 의미의 전체성은, 3장의 해석과 기타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삼국유사』에 속하지 않았지만 <육면비염불서승>에 관계있는 텍스트들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려는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텍스트들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들이 서술 과정에서 가감(加減)되거나 과장, 변형, 왜곡, 연결 등이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풍부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다분히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다루어야하는 작업이며, 『삼국유사』의 조목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와 종합적인 학문 영역들이 개입하는 교차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점이, 소박한 변명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메타적인 검토를 통해, 이야기 텍

스트 탐구로서 다른 논의들과의 암묵적인 전제들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려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육면비염불서승> 속의 부분들이 상보적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적인 해석적 전제가, 텍스트의 의미 관계의 전체성을 얻는 것에 보다 유용하고, 텍스트 내적인 추론 근거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려 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은 다소간 성취되었다. 만약 그 목적을 성취 하려는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들이 다소 강하다면, 다른 연구와 본 연구 간의 변별지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연구의 전반적인 방식과 목표 및 대상의 차이들, 해석을 위한 전제들의 차이들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 한정됨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고려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사』, 세가, 권 제17, 의종 5년,  
<http://db.history.go.kr/KOREA>.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대정신수대장경, 『지장보살본원경』, T13, No. 412.

원위(元魏) 바라문 구담(瞿曇) 반야류지(般若流支) 옮김(한역), 김월운 옮김(국역), 『정법념처경』,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K0801,  
<https://abc.dongguk.edu/ebti>, 1쪽~1802쪽.

원효, 정목 역, 『무량수경종요』, 비움과 소통, 2015, 12~383쪽.

일연, 이병도 역, 『삼국유사』,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a.co.kr>.

### 2. 저서 및 논문

김병권,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의 불교문화적 담론 연구』, 『퇴계학논집』 34, 2019, 159~182쪽.

김재호, 『도정도구의 변천과정과 연자방아의 도정도구사적 의의』, 『민속학연구』 5, 1998, 129~148쪽.

닛타 요시히로(新田義弘), 박인성 역, 『현상학과 해석학』, 도서출판 b, 2018, 1~333쪽.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박정일 역,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 코라 다이아몬드 엮음, 울, 2010, 1~462쪽.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1~408쪽.

박다원, 『『삼국유사』 구도설화에 나타난 하층민의 구도 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21, 2018, 139~163쪽.

신은경, 『『삼국유사』 소재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여성문학연구』 27, 2012, 7~31쪽.

신종원, 『『삼국유사』<육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한국전통문화연구』 7, 2009, 90~130쪽.

유리 로트만(Yuri M. Lotman), 김수환 역, 『기호계-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 문학과지성사, 2008, 1~391쪽.
- 이강엽, 「성聖과 속俗의 경계境界,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신발 한 짝’, 『고전문학연구』 43, 2013, 103~128쪽.
- 이도흠, 「한국 문학에서 호모 사케르와 주권 권력의 역학관계와 재현 양상, 『한국언어문화』 61, 2016, 5~30쪽.
- 이지환, 「문헌 육담의 성 경계와 남근자본주의 비판- 『어면순』과 『속어면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2019, 241~288쪽.
- 이지환, 「『삼국유사』의 불국토 세계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302쪽.
- 조애너 메이시(Joanna Macy), 이중표 역,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불교시대사, 2004, 1~366쪽.
- 진경환, 「『삼국유사』 『감통』 “육면비염불서승” 번역의 문제, 『한국전통문화연구』 22, 2018, 295~312쪽.
- 폴 리코르(Paul Ricoeur),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1~489쪽.
- 한보광,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 『불교학보』 33, 1996, 73~95쪽.

ABSTRACT

Holistic approaches to complementary relations of narratives  
in the subchapter “Ugmyeonbiyeombulseoseung” of *Samgugyusa*

Lee, Ji-hwan

The approaches herein initiate interpretations from the hypothesis about complementary relations between *hyang-jeon*(folklore narrative) and *seung-jeon*(Buddhistic narrative) in the subchapter “Ugmyeonbiyeombulseoseung” of *Samgugyusa*. These interpretations improve and extend the meaning of the female slave Ugmyeon’s praying practice and attainment of Buddhahood.

Developments of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complementarity hypothesis within the holistic view are more rational and robust than the dichotomous hypothesis of reductionism. This argument is justified by critical examination of reductive interpretations and a meta-review of narrative text inquiries. From refutations of the concealed premises of precedent discussions, it became clear that reductional premises are not appropriate for “Ugmyeonbiyeombulseoseung” taken as a whole text that presumably has intention and design with regard to descriptions and elaborated relations among the indispensable parts of the subchapter: two narratives, a eulogy, and a discussion.

Specifically, *hyang-jeon* emphasizes the will of Ugmyeon’s Buddhistic practice for attaining Buddhahood in the “here and now.” and *seung-jeon* offers concrete information about Ugmyeon’s previous life and later events, such as commemorative action, memento production, templ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nd so on. They are explici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interpretations in the third chapter. Consequently, these approaches attain effective interpretation-courses from the holistic view with cogency and richness, so that they do not degrade and contort the meaning of ‘Ugmyeon’ and her narratives.

**Key Words** Wukmyen, holism, complementary relation, connector, semiotics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